

# 중동 전쟁 관련 내수면 양식업계 간담회 개최

- 내수면 양식단체 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방안 등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4월 9일(목) 전북 김제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청,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를 비롯한 8개 내수면 업종별 단체\*가 참여하는 ‘내수면 양식단체 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송어, 향어, 자라, 메기, 민물장어, 다슬기, 동자개, 미꾸라지 협회

이번 간담회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면 양식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3일(금) 충북지역 어업인들과의 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연료비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내수면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유류보조금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할인 지원사업 등이 추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를 위한 범부처 햇빛소득 마을 공모사업을 통해 올해 50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인 만큼 양식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양식업계가 겪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가중될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책임자	과 장	도운정	(051-773-5630)
		담당자	서기관	김영민	(051-773-5637)
사무관	최은석		(051-773-5684)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6. 4. 9(목) 14:00~15:30 / 한국메기양식중앙연합회\*  
\* 전북 김제시 동서로 62 201호(T.063-453-5512)
- (참석자) 해수부(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전북도(수산정책과), 김제시(새만금경제국장), 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한국송어양식협회,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등 8개 단체
- (목적) 내수면 품종별 협회의 중동 전쟁 이후 애로사항 청취 및 대책 논의

□ **회의일정**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4:00~14:10	10'	■ 참석자 소개	
14:10~14:20	10'	■ 인사 말씀(어촌양식정책관)	
14:20~15:20	60'	■ 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의견 수렴	주재 : 어촌양식정책관
15:10~15:30	10'	■ 마무리 말씀(어촌양식정책관)	